

2022년 제7차 이사회

회의개요

1. 일시: 2022. 10. 13.(화) 15:02(개회)~16:58(폐회)
2. 장소: 상선원(경기 남양주 화도읍 북한강로 1462번길 57)
3. 출석: 재직 이사 26명 중 17명 출석
 - 가. 회 장(1): 박범규
 - 나. 부회장(3): 이동춘, 김충희, 김신성
 - 다. 이 사(13): 조광남, 김태정, 박세철, 이혜은, 진홍철, 김수범, 이천재, 박만석, 윤태원, 김형기, 김성현, 김순호, 송민재
4. 상정안건
 - 가. 보고사항
 - 1) 2022년 4분기 주요 사업 계획
 - 2)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 종료
 - 나. 심의사항
 - 1) 제19회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운영
 - 2)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 계획
 - 3) 전무이사 제도 도입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5시 02분)

□ 전차 회의록

1. 2022년 제4차 이사회
2. 2022년 제5차 (서면)이사회
3. 2022년 제6차 (서면)이사회
 - 가. 사회자 초록 보고: 2022년 제4차 이사회, 제5차 (서면)이사회, 제6차 (서면)이사회
 - 나. 참석자 주요 발언
 - 회 장: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전차 회의록 일괄 접수를 해도 괜찮습니까?
⇒ “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 장: 그러면 전차 회의록 일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보고사항

1. 2022년 제4분기 주요 사업

가. 주요 내용

1) 학교체육활성화

가) 시도협회 학교운동부 운영지원 (하반기)

- 초/중/고/대학 학교운동부 있는 시도협회(총 13개 예상)에 각 500,000원 지원

2) 국가대표 훈련

가) 국가대표 국내 친외훈련

- 기간: 11월, 12월

나) 국외전지 훈련 (예정)

- 2022 포르투갈 그랑프리 파견 (파견 종목: 49er, ILCA7)

3) 국가대표 후보선수

가)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 기간: 10월 ~ 11월 중 실시
- 장소: 부산광역시 수영만요트경기장 (예정)

4) 대회 개최

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

- 기간: 10. 07. - 10. 12.
-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해해수욕장
- 주최: 대한체육회
- 주관: 대한요트협회, 울산광역시요트협회

※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나) 2022 문체부장관배 생활체육전국요트대회

- 기간: 10. 29.(토) - 10. 30.(일)
- 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서울시원드서핑장
- 종목: 윈드서핑
- 주최: 대한요트협회
- 주관: 대한요트협회, 서울특별시요트협회, 서울특별시원드서핑연맹
-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정부명칭 생활체육 전국대회

다) 2023년 제1차 국가대표선발전

- 기간: 11. 10.(목) - 11. 13.(일)
- 장소: 부산광역시 수영만요트경기장
- 종목: ILCA 7, ILCA 6, iQFoil, 49er, 470혼성
- 주최: 대한요트협회
- 주관: 대한요트협회, 부산광역시요트협회

※ 협회 자체 예산

라) 2022 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

- 구분: 해양수산부 해양스포츠대회
- 기간: 11. 24.(목) - 11. 27.(일)
- 장소: 부산광역시 수영만요트경기장
- 종목: 킬보트 윈디자인
- 주최: 대한요트협회
- 주관: 대한요트협회, 부산광역시요트협회
- 재정후원: 해양수산부

5) 전문인력 양성

가) 2022-1차 국가경기운영관 강습회 (완료)

- 기간: 10. 01.(토)
-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해양레포츠센터
- 강사: 이필성 아시아요트연맹 부회장, 국가심판

나) WS국제경기운영관 강습회

- 강습회명: 월드세일링 경기운영클리닉 (Race Management Clinic)
- 기간: 11.16.(수) - 11.18.(금)
- 장소: 전북 부안군 모항해마루가족호텔
- 강사: Nino Shmueli (니노 슈무엘리, 국적: 이스라엘 / 국제심판, 국제경기운영관)
-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국제심판 양성 사업”으로 재정 지원(800만원) 받음.
- 월드세일링에 경기운영클리닉 개최 신청하여 승인 받았으며, 강사는 월드세일링에서 선정하여 파견함.
- 주요 대상자는 현재 활동 중인 국가경기운영관 자격자 및 현역 지도자로 함.

다) 2022-2차 국가심판 강습회

- 기간: 11.28.(월) - 11.30.(수)
- 장소: (유치 신청 접수 중)
- 강사: 정승철 국제심판/국제업과이어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라) 2022-2차 국가경기운영관 강습회

- 기간: (미정)
- 장소: 서울 (예정)
- 강사: (미정)

마) 2022년 국가계측관 강습회

- 기간: (미정)
- 장소: (미정)
- 강사: (미정)

6) 국제체육교류

가) 월드세일링 총회(연차회의)

- 연차회의 전체기간: 10.22.-10.29.
- 파견 내용

- * 파견자: 1명 (이필성 아시아요트연맹 부회장)
- * 파견기간: 10.25.(출국) - 11.01.(귀국) / 6박 8일
- * 소요 예산: 대한체육회 지원금으로 항공료, 숙박비 지원
총 380만원 예상 (환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특이사항: 10월 30일 개최 예정인 아시아요트연맹 총회 등 참가

7) 기타

가) 협회 홈페이지 개편

- 기간: 09월 ~ 12월
- 총 소요예산: 11,200,000원
- 주요 개편 사항: 모바일 환경 최적화, 디자인 및 레이아웃 최신화,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나. 참석자 발언

- 000 이사: 대표팀 사업 관련해서 국외 동계훈련 예정 포르투갈 그랑프리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49er와 레이저 날짜가 언제입니까?
- 사회자: 12월 하순입니다.
- 000 이사: 12월 20일이요?
- 사회자: 20일 경이고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예정으로 했던 이유는 이 파견에 대한 계획은 9월 30일부로 임기가 종료된 지도자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11월부터 시작하는 지도자가 새로 선발되면 지도자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못 넣어 드렸는데요.
- 000 이사: 최소한 이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네요?
- 사회자: 네. 기금 부분들은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기금의 잔여 금액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000 이사: 잘 알겠습니다.
- 회 장: 동의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 000 이사: 여기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 있잖아요. 이게 올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요트팀들도 그렇고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1차, 2차 다 실시했고 아시안게임 선수들도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협회 예산을 여기에 소모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내년 사업이라든지 대표팀 지원하는 데에 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 000 부회장: 일단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내년도 아시안게임 참가자는 선발이 된 겁니까? 올해 선발전으로써?
- 사회자: 부회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000 부회장: 올해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파견하면 선발해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으로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참가하는 사람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올해 선발한 사람이 내년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사회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국가대표 TF팀 안전에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아시안게임이 올해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중국 측에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연기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올해 9월에 개최했을 때 파견하려고 했던 선수 선발 방식에 더해서 내년도로 1년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그대로 선정하지 않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선발 방식을 결정하자고 당시 5월에는 결정하였고 지난 10월 6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차, 즉 원래 연기되지 않았을 때 파견하려고 했던 1~2차 선발전을 포함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계속 누적해서 이번에 11월에 하려고 하는 선발전 그리고 종목마다 조금은 다른데 내년도 3~4월에 국외 대회, 외국에서 펼쳐지는 대회를 그런 포인트를 쫓아서 최종적으로 제일 포인트가 높은 선수를 파견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고요. 그 근거는 대한체육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연기가 됨에 따라서 선발 방식을 기공지한 것대로 그대로 선발 선수를 확정해서 파견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종목별로 상이하니 그것은 단체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000 부회장: 그러면 국가대표 선발전을 현재 대한요트협회 공지사항에 올렸습니까?
- 사회자: 국가대표 선발 기준 알림을 한 달 전에 올렸고요. 거기에 1차 선발전이 있다고 했고 이 대회의 개최 알림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000 부회장: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달 전이나 대회를 알림을 하고 그다음에 S.I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죠? 그것은 어떻게 되죠?
- 사회자: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전에 올려야 합니다. 대회 개최 알림을 올려야 되고요. 체전 중간에 그 날짜가 있었으며...
- 000 부회장: 그러면 회장님, 오늘 심의 1안에 보면 아시안게임에 관련돼서 내년도 대한요트협회에서 목표로 할 수 있는 안전 중에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위한 TF팀을 만들자는 심의 안이 1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한 다음에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매듭을 짓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회 장: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 장: 혹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 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은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소리가 들림.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2.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 종료

가. 주요 내용

종목	성명	계약 기간
ILCA 7	김정곤	~ 2022.09.30
ILCA 6	최성은	
iQFoil	옥덕필	
RS:X	송명근	
470(혼성)	정성안	
49er	김성욱	

※ 국가대표 트레이너 (박영진)은 2022.12.31. 계약 종료

나. 참석자 발언

- 회 장: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이사 다수 있음.

다. 논의 결론: 원안 접수

□ 심의사항

1. 제19회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운영

가. 주요 내용

1) 아시안게임 최근 3개 대회 국가 순위

○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총 14개 종목)

순위	국가	금	은	동	계
1	 중국	4	2	4	10
2	 태국	3	1	2	6
3	 일본	3	1	0	4
4	 싱가포르	2	2	4	8
5	 대한민국	1	2	3	6
6	 홍콩	1	2	0	3
7	 말레이시아	0	2	1	3
8	 인도	0	1	0	1
	 인도네시아	0	1	0	1
		14	14	14	42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총 14개 종목)

순위	국가	금	은	동	계
1	 대한민국	4	1	1	6
2	 중국	3	2	2	7
	 싱가포르	3	2	2	7
4	 홍콩	2	2	1	5
5	 태국	1	2	6	9
6	 말레이시아	1	2	0	3
7	 일본	0	3	1	4
8	 인도	0	0	1	1
		14	14	14	42

○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총 10개 종목)

순위	국가	금	은	동	계
1	일본	4	0	0	4
2	중국	3	4	0	7
3	말레이시아	1	1	3	5
4	대한민국	1	1	1	3
5	싱가포르	1	0	1	2
6	홍콩	0	3	0	3
7	인도	0	1	2	3
8	태국	0	0	3	3
		10	10	10	30

2) 아시안게임 최근 3개 대회 성적

대회명	세부종목	척 수	순위	선수	종합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 2010.11.14.-11.20. 중국, 광저우	레이저(남)	7	1위	하지민	총 14개 종목 중 금 1 은 2 동 3
	미스트랄(남)	8	4위	송명근	
	RS:X(남)	10	3위	이태훈	
	옵티미스트(남)	11	8위	김우엽	
	옵티미스트(여)	9	7위	김다혜	
	420(남)	8	2위	이상민, 양호엽	
	470(남)	7	3위	정성안, 김대영	
	호비16(남)	7	2위	전주현, 정권	
매치레이싱(오픈)	8	3위	박건우, 이동우, 김성욱, 조성민, 남용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2014.09.24.-10.01. 대한민국, 인천	레이저(남)	10	1위	하지민	총 14개 종목 중 금 4 은 1 동 1
	레이저 레이디얼(여)	8	6위	이경진	
	옵티미스트(남)	10	1위	박성빈	
	옵티미스트(여)	8	5위	김다정	
	470(남)	6	1위	김창주, 김지훈	
	420(남)	9	8위	김우엽, 김인수	
	420(여)	6	3위	이나경, 최서은	
	호비16(남)	9	1위	김근수, 송민재	
	RS:X(남)	9	4위	이태훈	
	RS:X(여)	4	4위	천사빈	
	RS:One(여)	7	6위	이유진	
	미스트랄(남)	7	4위	서동우	
	29er(여)	6	5위	김지아, 강제현	
매치레이싱(오픈)	9	2위	박건우, 조성민, 김성욱, 양호엽, 채봉진		
제18회 아시아경기대회 2018.08.24.-08.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레이저(남)	16	1위	하지민	총 10개 종목 중 금 1 은 1 동 1
	레이저 레이디얼(여)	10	7위	김지아	
	레이저4.7(오픈)	23	15위 7위	김동욱 김다정	
	RS:X(남)	10	3위	이태훈	
	470(남)	11	4위	김창주, 김지훈	
	49er(남)	9	2위	채봉진, 김동욱	
	RS:One(혼성)	8	6위	서영길, 김새봄	

3) (대한체육회) 2022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원 내용

[근거: 훈련기획부-12118「2022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인원 및 일수 승인 알림(2021.12.30.)」]

○ 요트종목 지원 내용

훈련인원					합계	훈련일수	지원분류	비고
선수			코치	트레이너				
남	여	소계						
17	4	21	6	1	28	190일	G2	

○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

가. 훈련 지원 체계 세분화

- 1) **Top 10 신설**, 금메달 획득 유망 종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기존 3단계→4단계)
- TOP 10, G1, G2, G3(기존구분: 중점, 정책, 일반)
- 2) 종목 구분 세분화: 기존 종목단체 구분 기준에서 세부종목별 구분 지원

나. 국가대표 운영에 대한 종목단체 자율성, 책임 강화

- 1) 국외사업(국외정보수집, 외국인코치, 초청훈련) 예산 총액 분기별 일괄 교부
- 2) 훈련일수 제한 폐지: 2021년도부터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은 12개월 모두 지급 중이며 종목마다 부여된 훈련일수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요트종목은 중점지원으로 “11개월”의 훈련기간 부여 받음.)

다.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과감한 육성 전략이 필요한 종목(유도, 레슬링, 태권도)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 선수로 구분하여 훈련인원 책정, 다양한 파트너 선수를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1) 종목단체 의견 수렴 → 지원 근거 규정 승인 후 시범 운영 예정

라. 상시 훈련 지원 종목 기준 일부 변경

- 1) 지원기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준회원, 인정단체는 별도 지원 검토)

(체육회) 2022년 훈련지원 체계

구분	유형별 주요 지원내용				비고
	Top 10	G1	G2	G3	
책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올림픽 금메달 획득 ○ 올림픽 금메달 획득 유망 종목 (세계선수권 우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출전권 획득 유망 종목 ○ 올림픽 메달 획득 유망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출전 목표 ○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획득 유망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프로 종목 등 ○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종목 	
훈련인원편성	선수	증원 요청 시 우선적 검토	전년 대비 90~100% 수준 유지	경기력을 고려, 전년 대비 80~90% 수준으로 조정 가능	경기력을 고려, 전년 대비 70~80% 수준으로 조정 가능
	지도자 (코치)				
	트레이너 (전담팀)	※ 인원 책정기준: 올림픽(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엔트리			
훈련일수	210일		190일	150일	
국외사업 지원 기준	기본 배정액의 25~35% 범위에서 증액 가능		기본 배정액의 15~25% 범위에서 증액 가능	기본 배정액의 0~15% 범위에서 증액 가능	* 기본 배정액: 최근 5년간 집행액
	○ 종목별 특성, 인원, 올림픽 기여도 등 기타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산정				

[지원 유형별 종목]

구분	유형별 주요 지원내용				비고
	Top 10	G1	G2	G3	
책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올림픽 금메달 획득 ○ 올림픽 금메달 획득 유망 (세계선수권 우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출전권 획득 유망 종목 ○ 올림픽 메달 획득 유망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출전 목표 ○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획득 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프로 종목 등 ○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종목 	
대상종목	알파인(리프트), 체조(기계), 펜싱(남, 여자), 빙상(소속보급), 발상(스피드), 스키(PGS), B-S(스몰레온)	육상(올리머리), 배드민턴, 펜싱(수영(장영, 디아벨), 핸드볼(여), 유도, 권대5종, 사격, 탁구, 태권도(가무기), 유도, 레슬링, 스키(2), 합성(유도(올림픽))	육상(2), 육상, 핸드볼(남), 유도, 체조(리듬), 하키, 산악, 럭비, 카누, 절인(3종, 자연계, 보양, 글로, 유트, 스무즈볼(라이벌), 수영(수구, 마린스틱), 스키(미트볼, 브레이크, 알파인(합리움드), 태권도(올세), 소프트테니스, 펜싱(대기), 무지,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농구, 축구, 배구, 마구, 테니스, 제독리프, 스위시, 무슈, 전라전통다, 배독	과를 정회된 양세
훈련인원편성	선수	증원 요청 시 우선 검토	전년 대비 90~100% 수준 유지	경기력을 고려, 전년 대비 80~90% 수준으로 조정 가능	경기력을 고려, 전년 대비 70~80% 수준으로 조정 가능
	지도자 (코치)				
	트레이너 (전담팀)	※ 인원 책정기준: 올림픽(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엔트리			
훈련일수	210일		190일	150일	
비고	○ 종목별 훈련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훈련인원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선수현장에게 훈련인원 조정 승인 권한 위임				

[참고: (구)훈련지원체계]

구분	유형별 주요 지원내용			비고
	통정지원	정책지원	일반지원	
핵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올림픽종목 ○ 동계올림픽종목 ○ 올림픽출전 가능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아시아게임 종목 ○ 2020하계올림픽 미출전 종목 또는 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 종목 	
대상종목 (45개 종목)	양궁, 펜싱, 유도, 사격, 태권도,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자전거, 탁구, 역도, 육상, 카누, 체조, 핸드볼, 근대5종, 조영, 하키(남), 요트, 수영,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27개 종목)	양궁(컴파운드), 볼링, 카바디,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스텝시, 윌리, 골프, 하키, 소프트볼, 테니스, 컬링3종, 카라테, 승마, 스키에어로브, 드, 선악 (14개 종목)	야구, 농구(3x3모형), 축구, 배구 (4개 종목)	양궁 (컴파운드), 야구 (소프트볼) 종목
훈련기간	11개월/220일 내외 (국외전지훈련 포함)	10개월/200일 내외 (국외전지훈련 포함)	9개월/180일 내외 (국외전지훈련 포함)	
국외전지훈련	1회 30일 내외 연4~5회 지원 ·매달 가동성 등 장단 차등 지원	1회 30일 내외 연1~2회	1회 20일 내외 연1~2회	

4)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 개최) 및 2024 파리 올림픽 세부종목

OG/AG	부	종목	클래스	비고	AG 파견 종목*
올림픽, 아시안 게임	남자부	1인승 당기	레이저 (ILCA 7)		○
		윈드서핑	iQFoil		○
		2인승 스킵	49er		○
		카이트보딩	포플러카이트		○
	여자부	1인승 당기	레이디얼 (ILCA 6)		○
		윈드서핑	iQFoil	국내 선수 없음	-
		2인승 스킵	49erFX	국내 선수 없음	-
		카이트보딩	포플러카이트		○
혼성	멀티힐	나크라 17	국내 선수 없음	-	
	2인승 당기	470		○	
아시안 게임	남자부	1인승 당기	레이저4.7 (ILCA 4)	2006.01.01.생 이후	○
		윈드서핑	RS:X		○
	여자부	1인승 당기	레이저4.7 (ILCA 4)	2006.01.01.생 이후	○
		윈드서핑	RS:X	국내 선수 없음	-

* AG 파견 종목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 후 홈페이지 공지 완료 (2022년 1월, 2월)

5) 국가대표 운영 현황

○ 세부종목 별 선수 수 (2022년 6월부터)

세부종목	척 수	남	여
ILCA 7	3	3명	-
ILCA 6	2	-	2명
iQFoil	4	4명	-
470(혼성)	3	3명	3명
49er	3	6명	-
합계	15	21명	

○ 지도자 현황

구분	종목	코치	선임코치
1	ILCA 7	코치	감독제가 아닌 선임코치제로 운영하며, 선임코치는 선발된 종목지도자 중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임코치는 감독직으로 대우한다.
2	ILCA 6	코치	
3	ILCA 4	여성코치	
4	iQFoil	코치	
5	470(혼성)	코치	
6	49er	코치	

※ 계약 기간: 2022.11.01.~2024.09.30.

※ 지도자 선발 절차 중 (2022.10.20. 경기력향상위원회 면접심사 예정). 전 종목 외국인코치도 지원 접수 받았으며 지원 접수 후 철회한 자 제외, 2022-18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접 대상자 선정함.

6) 2022년 11월 이후 국가대표 선발 방식 (국가대표 랭킹 부여)

구분	대회명	기간	장소	종목
1	2023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	2022. 11.10.~11.13.	부산	ILCA 7, ILCA 6, iQFoil, 49er, 470(혼성)
2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2023. 예정	미정	전 종목
3	제21회 해군참모총장배	2023. 예정	미정	전 종목
4	제35회 대통령기전국 시도대항	2023. 예정	미정	전 종목
5	2023 대한요트협회장배	2023. 예정	미정	전 종목

7)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견 선수 선발 방식 (근거: 2022-18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2.10.06.)

종목	선발 방식	비고												
ILCA7, ILCA6, 470, 49er, iQFoil	○ 아래 대회와 랭킹 점수 합산 결과 1순위 선수 선발													
	<table border="1"> <thead> <tr> <th>대회 명</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td> <td>완료</td> </tr> <tr> <td>2022년도 2차 국가대표 선발전</td> <td>완료</td> </tr> <tr> <td>2023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td> <td>2022.11.10.~11.13.</td> </tr> <tr> <td>Princess Sofia Regatta - 프린세스 소피아 (스페인 팔마)</td> <td>2023.03.31.~04.08.</td> </tr> <tr> <td>Hyeres Regatta - 이에르 리가타 (프랑스 이에르)</td> <td>2023.04.22.~04.29.</td> </tr> </tbody> </table>	대회 명	기간	2022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완료	2022년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완료	2023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2022.11.10.~11.13.	Princess Sofia Regatta - 프린세스 소피아 (스페인 팔마)	2023.03.31.~04.08.	Hyeres Regatta - 이에르 리가타 (프랑스 이에르)	2023.04.22.~04.29.	
	대회 명	기간												
	2022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완료												
	2022년도 2차 국가대표 선발전	완료												
	2023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2022.11.10.~11.13.												
Princess Sofia Regatta - 프린세스 소피아 (스페인 팔마)	2023.03.31.~04.08.													
Hyeres Regatta - 이에르 리가타 (프랑스 이에르)	2023.04.22.~04.29.													
※ 2022년도 1차, 2차 국가대표 선발전은 (일정 연기 전)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선발 대회였음.														
※ iQFoil은 2022-2차 국가대표 선발전 제외(사유: iQfoil 미포함)														
※ 국외 대회와 랭킹점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 점수 산정방식을 따름 (외국인 선수 등 모두 포함 하여 산정)														
ILCA4, 카이트보딩	○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 엔트리 제출 마감일 기준 2023년 국가대표 랭킹 1순위 남, 여 선수 각 1명 선발 ※ 2023년 국가대표 선발전은 해양경찰정장배, 해군참모총장배, 대통령기, 협회장배 예정													
RS:X	○ 위 아시안게임 iQFoil 선수 선발방식에 따른 차순위 선수 선발 (차순위 선수 미희망 시 다음 차순위 선수 선발)													

8)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대응 방향

- 가) 가능한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을 반영하여 국제대회에서 우리선수끼리 경쟁 보다는 국제대회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 선발
 - >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기준 마련 시 반영
- 나) 일부 종목은 외국인 코치 선발하여 경기력 향상 도모하고 분위기 개선
- 다) 통상 유럽의 국제대회들이 3월말~5월까지 몰려 있어 이 기간 국가대표의 국외훈련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이 빠르면 3월말에 개최되어 국제대회 참가 신청 및 파견에 문제가 있었음. (비용 상승, 좋은 숙소 확보 불가, 복잡한 준비 절차 등) 이 부분의 문제 해결 필요.
 - > 해결 방안으로 전년도 말 국가대표 선발 완료하여 파견 선수 미리 확정.
 - > 해당 자체 예산을 일부 사전 편성하여 항공료 등 미리 결제 필요. (미리 결제 시 단가를 낮출 수 있음.

9) 제19회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관련 주요 논의 사항

구분	내용
역할	
인원 구성	
활동 방법	

나. 참석자 발언

- 회 장: 부회장님과 이사님들께서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000 이사: 보시면 국가대표 선발전에 카이트보딩이 빠져 있는데 14페이지를 보시면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올림픽에도 남자, 여자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현재 국가대표 선발이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클래스 분과 협회 쪽에서도 협회로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대표팀 지도자와 대표님을 뽑을 수 있게 부탁을 했는데 왜 안 되는지를 알고 싶고 이번에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태리에 포물러 세계선수권대회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과 부회장님 도움으로 선수들이 단독으로 한 분과 선수 두 분이 갔습니다. 선수 대표로 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현재 세계선수권 하고 있는 쪽에서도 아시아 쪽으로 8개국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아시안게임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대회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첫째, 둘째 날 기록만 보더라도 아시아 쪽에서는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이트보딩도 남자, 여자 대표팀을 선발할 수 있게 그다음에 지도자를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000 이사: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경향위 일을 맡고 있는 관계로 현재 대표팀의 대한체육회 티오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안 나오는 상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카이트에 코치님이 없습니다. 코치님도 없고 그다음에 세부 종목으로 가다 보면 4.7하고 카이트를 나중에 3배수로 해서 훈련을 하게끔 해놨는데 그 종목들 나중에 국내 대회 선발전 하면서 선발을 하긴 할 겁니다. 4.7 2명 남녀 뽑아야 되고 카이트도 남녀 2명을 뽑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국내 대회 하면서 카이트 뽑아서 그래갖고 나중에 아시안게임 전에 한 번씩 치르는 걸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코치가 현재 없다는 거예요. 그러

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도 티오를 협회에서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코치도 티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향위를 맡고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카이트를 넣을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 사회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트가 신생 종목이고 대한요트협회 산하로 들어온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카이트를 타셨던 분들이 제도권에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이트보드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공고를 내도 그 자격이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게 코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회 장: 다른 이사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000 이사: 그렇게 따지면 저희 요트도 외국인 코치들 다 봤지 않습니까? 카이트도 마찬가지로 요트보다 메달이 더 아시안게임에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 또한 외국인 코치를 선발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 000 이사: 처음에 카이트를 경향위에서 뽑으려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다가 다음에 카이트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000 선수와 000 선수하고 그런 법적인... 폭력 그런 걸로 언어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류를 내던 과정에 카이트를 못 뽑은 이유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안 됐고 현재도 계속 민사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도 없을뿐더러 티오가 전체적으로 레이저, 레이디얼, 470, iQFoil 그다음에 여성 코치 1명 그 다음에 레이디얼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티오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 000 이사: 그거는 어느 스포츠든 폭력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그런 걸 따져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포커스를 두자고 하면 어떤 게 승산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카이트도 하나의 요트라고 보니까 같은 거기 때문에 늦게 왔다고 해서 그런 걸 배제시키지 마시고 여기도 나름 열심히들 하고 계실 테니까 코치가 없다면 외국인 코치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승산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000 이사: 추후에 그거를 감안해서 아시안게임에 합류할 수 있도록 경향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000 부회장: 최대한 신경을 써 보시죠. 지금부터 부족한 것을 채우고 준비해서 열심히들 하고 지금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 000 부회장: 경향위 위원장님이 협회 임원인데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기타 성적 목표는 설정해봤습니까?
- 000 이사: 현재 어느 정도는 설정해봤는데요. 외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000 부회장: 대한요트협회가 각 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그 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대한요트협회 이사회에서 와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내고 대한요트협회 발전을 가속시키고 거기에 기름칠하고 원동력을 하는 게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국가대표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향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선발도 하고 우리나라 요트의 위상과 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기 계신 임원들과 요트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향위에서 이사분들이 대한요트협회 회장님이 출범하고 난 후에 경향위에서 회장님께 메달에 대한 보고도 한번 없었고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보고서도 한번 안 올라오고 현재 어떻게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올림픽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심의 안전에...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요트협회를 이끌어 가신 지가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향위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선발적인 부분이나 외국 선수나 지도자들이 다 간 다음에 다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대비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할 것인가도 고민이 많고 결국에는 우리 요트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상이 관련되어 있는 거 같아요. 10쪽을 보면 2010년, 2014년, 2018년. 2014년은 아시안게임을 주도적으로 여기에서 치렀기 때문에 종합 1위라는 성적을 냈지만 자카르타에서는 현저히 낮게 메달 겨우 3개 금, 은, 동 하나씩 따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전에 요트인들이 20년, 30년 전에는 아시아의 최강이라고 1위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왔는데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올해 아시안게임을 중국에서 치렀다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땀땀했어? 제가 봐서는 뻥한 겁니다. 많이 따야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예상컨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트 국가대표 선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표와 설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집행부와 회장님이 연계해서 부족하면 회장님이 지원하는 비용을 더 사용을 해서라도, 10년 전에 요트협회 회장님이 그동안 비용이나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서 이어왔지만 이제는 회장님께서 벌써 지원한 지가 언제예요? 협회가 몇 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협회를 운영하고 이런 데 쓰라고 해놓은 돈인데 경향위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집행부와 협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TF팀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체육회에서 왜 우리가 그동안 TOP10 G1, G2, G3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도 경향위에서 이걸 가지고 훈련 일수를 더 늘릴 것인가. 아시안게임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타 경향위가 활동을 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어떻게 추진해서 갈 것인가. 지도자 수준은 얼마나 더 높여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경향위에서 물론 시도에서 전문적으로 다 지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협회 임원과 회장님과 기타 여러 요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과 같이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갈 거예요. 1, 2, 3, 4 정해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앞으로 오

늘 심의사항에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운영에 관련된 심의 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한번 여기에서 논의해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000 이사: 답변을 드리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10월 대표팀 코치를 재선발해서 내년 아시안게임 목표로 메달을 얼마나 많이 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코치님들과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었지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일부러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아시안게임 코치 선발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대표팀에 관련돼서 해외 전지훈련 나갈 때도 협회 기금을 한 푼도 사용 안 했거든요.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표팀에 집중 투자를 해주시면 현재 하는 건 카이트보드만 1,000여만 원 조금 더 되게끔 협회비로 지원해서 현재 나간 상태고요. 내년에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협회에서 지원을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더 충당시켜서 하면 나중에 개요를 잘 잡아서 아시안게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부회장: 경향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 안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에 제19회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운영을 박범규 회장님 주도적인 안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안을 우리 회장님께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 000 이사: TF팀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역할론이나 이런 걸 먼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요.
- 회 장: 다른 이사님들도 여기서 의견을...
- 000 이사: 경기력향상위원장을 계속 맡으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동계올림픽을 직접 감독으로 다녀왔는데요. 그 이후에 어찌 됐든 협회와 우리 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요청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우 아쉽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치로 갔는데 보면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국제대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은 대표팀 자체에 정확하게 경향위에서는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팀 훈련한다고 국가대표 훈련을 빠지기도 하고, 대부분 470 종목 그리고 레이저 하지만, 이태훈 선수 iQFoil 개인적으로 국제대회 참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협회 자체에서 그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충족을 못 시킨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대표팀 코치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지 않았나.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다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는 지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국제대회 다녀온 결과물이 정말 형편없어서 매우 아쉽고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년 아시안게임에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파리올림픽 예선전이 알다시피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확

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지도자 선발부터 해서 플랜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지도자를 잘 뽑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이 직시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본 결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또 새롭게 우리가 다져서 정말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민들에게 요트라는 종목을 알리면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이번 이사회가 되고 서로 간에 오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은 배는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맞잡고 지금 이 시점에서 는 늦었지만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 장: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TF팀 운영을 하게 되면 부담도 가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하는 이동춘 부회장을 TF팀 운영 필두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뒷심이 많이 부족해서 이동춘 부회장님께서 TF팀 운영을 해서 공정하게. 부회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계속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고 그 상황이나 흐름을 나보다는 이동춘 부회장이 잘 알기 때문에.
- 000 부회장: 제 생각에는 지금 뭐 000 경향위 위원장님 고생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 이게 사실은 힘들게 운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도 갖고, 그렇죠? 조금 저조할 때는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동기부여 삼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경향위, 대회위 그리고 협회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을 해서 골고루 섞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한 게 아니라 우리 협회를 위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회장님의 인준을 받아서 올리면 받아서 그걸 진행해 보는 걸로. 여기서 역할이나 구성, 활동 방침 이런 거는 못해요. 이거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3주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회장님께서 적절하게 해서 각자 맡은 바 전문적인 어떤 것들을 규합해서 TF팀 구성을 마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계약 기간이 2022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2024년 9월이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조건부 연장을 하게 되면 한다면. 이런 것도 TF팀에서 한번 서로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트인이라면 좋은 성적 기대하겠죠. 그런 걸 발판 삼아 올림픽에 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2년 차에 돼버리면 올림픽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TF팀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000 이사: TF팀이라는 게 구성해서 이게 어쨌든 각 전문적인 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직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목표가 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임시 조직이거든요. 어쨌든 임시 조직으로 하는 건데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경향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가 아니라 경향위원회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론 자문은 해줄 수 있지만 경향위의 결정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는 그게 없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000 부회장: 그거는 법리대로...
- 000 이사: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000 부회장: 저희가 이게 있거든요. 날짜가 없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코치들을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코치가 없다 하더라도, 늦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선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어져 온 것이라 해서 부족한 것을 그냥 다음 해로 넘기자, 이런 차원이 되어 버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만약에 2년 지도자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정하면 2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규정이든 법리든 검토할 수 있는 내에서 하자고요.
- 000 이사: 전에는 4년을 했습니다..
- 000 부회장: 아니, 그러니까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 000 이사: 예를 들어서 2년이라는 기간 올림픽까지는 기회를 주자는, 노력은 해봐야 되니까요
- 000 부회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000 부회장님 말씀처럼 저도 요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메달도 처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치렀던 대회 빼고라도 보니까 3개가 되니까 제가 고문님들을 모시고 식사할 때 예전에 시작했을 때는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자고 하는 거예요. 반감을 가지고 경향위에 대해서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좋게 상의해서, 우리가 또 아닌 것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한도 내에서 우리 윤 차장이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단기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도자 선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1개월 전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어서 1개월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 종료가 되고 11월, 12월 훈련 없고 10월 훈련 없고 1월부터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10월 20일에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을 위한 면접을 합니다. 거기에 선발이 되면 이사회로 올립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 000 부회장: 그러니까 병행을 하자는 것이죠. 선발이 됐다 해서 이사회에서 100%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반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함께 병행해서 선발할 때도 더 좋게 우리가 중지를 모은 선발 기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 회 장: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000 이사: 경향위에서 1차 선발을 하고요. 이사회에 선발됐다고 해서...
- 회 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경향위에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여쭙는 겁니다.
- 000 이사: 기준이요? 랭킹으로 합니다. 랭킹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 000 부회장: 000 부회장님께서 방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아의 호랑이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회장님께서서는 그 많은 기금을 요트협회에 요트 발전을 위해서 헌납을 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요트인들이 요트의 국가적인 위상과 자존심을 세워서 거기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수석 부회장님이신 이동춘 부회장님께 이 TF팀을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재청합니다. 이동춘 부회장님께서 구성을 어떻게 하든, 물론 그렇지만 경향위 위원장님은 필히 거기에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켜서 7인이 됐든 11인이 됐든 몇 인이 됐든 대내외적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좋은 성적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활동이나 역할, 활동 방법 이런 안을 만드셔서 이동춘 부회장님께서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 장: 다른 이사님들은요?

⇒ “동의합니다.” 하는 이사 다수 있음.

○ 회 장: 그러면 1호 안건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자: 그러면 지금 수석 부회장님께 TF팀 관련 사항을 일임한다고 하고 거기에 경향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가 지금 나오신 내용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의결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이사 다수 있음.

○ 회 장: 그러면 1호 안건 제19회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운영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다. 논의 결론: 제19회 아시안게임 대비 국가대표 지원 TF팀 관련 사항을 이동춘 수석부 회장에게 일임하고, TF팀에는 경기력향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함.

2.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 추진 계획

가. 주요 내용

- 1) 2022년도 편성 예산: 자체 10,000,000원
- 2) 관련 주요 사업(안): 대한요트협회 50년사 발행, 창립50주년 기념식(2029년) 등
- 3) 주요 논의 필요 사안
 - 가) 추진단 구성 방안
 - 나) 전체적인 운영 방식

나. 참석자 발언

○ 000 부회장: 주요 내용 중에 2022년도 편성 예산이 올해가 불과 1~2개월 남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으로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갈 것인가, 또 앞으로 벌써 2029년이라면 6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일차적인 예산을 우선 사용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은 논의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고 내년도 사업으

로 추진하는 걸로 회장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 회 장: 다른 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000 이사: 이게 1,000만 원씩 올해부터 잡히면요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잡히는 건지, 아니면 29년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만 필요한 건가요?
- 000 부회장: 그러니까 올해 사용해야 될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불과 2개월 남았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없으니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이것 또한 내년도 사업 계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사무국에서 안을 내든가 기타 임원님들의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 000 이사: 이월시키는 거는 저도 찬성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 000 부회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만 우선 1,000만 원으로 해 보고, 차후 년도 2024년도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내년에 가서 의논을 하자는 이야기죠.
- 000 이사: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협회가 여러 가지 업무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2029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대비해서 회장님 직원을 충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회 장: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이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안전에 이렇게 주요 사업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안도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서 50년사 책을 발행하자는 것도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참고용이고 기념식도 저희가 그냥 참고로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회 장: 다른 이사님들 동의나 이의 없으십니까?
- 000 이사: 글썄요. 이 부분을 심의사항으로 넣었을 때 회장님께 사전보고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두 달 반 정도 남아있는데 최소한의 내년을 준비하든 또 2029년을 준비하든 생각이 있었는데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사무국의 생각을 전혀 못하고 다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분집행이 필요한 계획이 있는지는 우리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사회자: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창립 50주년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50주년 사 발행 정도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자리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음 이사회 때는 이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근접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사단법인 등 단체에서 50년쯤 되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호응이 좋을지 저희도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시간을 2개월 정도 보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이사회가 아무래도 내년 1, 2월에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그전에 12월에 이사회 한 번 정도 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도 안을 마련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위해서 준비하거나 꼭 11월, 12월에 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000 이사: 50주년 기념은 보통 자료를 모아야 하잖아요. 책을 발간하든 역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요트협회 사무국에 혹시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단기간에 1년이나 몇 달 만에 모여서 작업을 해버리면 되겠지만 없다고 하면 지역 협회에 다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모아야 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안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회 장: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사회자: 저희 협회에 80년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때 사진이라든지 그때 당시 요트 경기를 했던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예전에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이사였고 회장이셨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계를 거쳐 가셨던 분들의 개인 소장했던 내용들이나 기억해야 될 자료들은 개인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협회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가 예전에 96년까지 격월로 해서 회보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보도 전 회보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대한요트협회가 발행하는 2개월짜리 매거진이죠.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50년사에 얼마만큼 그 부분에 포션이 차지할지 몰라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협회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인이나 시도 협회나 국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개인 자료나 인터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회 장: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지역 협회에서도 쪽지로 받아서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000 부회장: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 되면 너도 나도 나서서 제출할 거예요. 그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 사회자: 아무래도 79년도 창립하실 때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더 늦어지면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유명을 달리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슬슬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부회장: 아까 000 부회장님 말처럼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심의사항으로 다뤄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000 부회장: 막연하게 내년에 미뤄서, 물론 사업비는 내년부터 사용을 하더라도 구성 인원이나 누가 추진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이동춘 수석 부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이사회에서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사무국에서 잡아주시죠. 50주년이라는 것은 사무국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니깐요.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이런 이야기

가 머리에 들어왔는데 79년도부터 우리 요트협회를 발족하고 추진했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자료도 얻어야 하고 의견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부회장: 회고사라도 할 수 있게 해서 해놓고...
- 000 이사: 제가 알기로는 최고 어른이 장영주 선생님이신데요. 장영주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회고록 책자나 준비하셨고 어느 정도 요트 전체 역사를 정리를 해놓으신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 000 부회장: 그걸 참고하면 또 큰 도움을 받겠네요.
- 사회자: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도 100년사를 발행했고 다른 복싱협회도 50년사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종목 단체에서 30주년사든 50년사든 한을 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우리 협회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에 수석부회장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다듬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 장: 그러면 2호 안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이사 다수 있음.
- 사회자: 회장님, 그러면 사업비는 이월하시고 추후 논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회 장: 그러면 제2호 안건 창립 50주는 기념사업 추진 계획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다. 논의 결론: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 사업비는 이월하고 관련 내용은 추후 논의함.

3. 전무이사 제도 도입

가. 주요 내용

1) 참고 사항

- 가) 2022-4차 이사회(2022.7.19.) 의결로 위임전결규정의 전결권자 직위 변경함. (전무이사 -> 부회장)
- 나) 현재 전결은 사안에 따라 수석부회장, 사무처장(현재, 차장)이 전결하고 있음.
- 다) 지난 8월 1일 공고한 사무처장 채용 건은 최종 적격자 없음으로 종료됨.

2) 주요 논의할 사항

- 가) 전무이사의 역할
- 나) 전무이사 수당(활동비)
- 다) 기타

나. 참석자 발언

- 회 장: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000 이사: 전무이사 제도가 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문제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전무이사 제도를 다 폐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요트협회에서도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전무이사 제도를 한다고 하면 활동비나 수당이 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국에 사무처장만 뽑아놓으면 협회는 업무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 000 부회장: 사무처장이요?
- 000 이사: 네. 그러니까 전무이사에서 사무처장 제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무처장 쪽으로 가서... 왜냐하면 전무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활동비나 수당이 지급되면 협회비 자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협회 직원 분들도 지원받으면서 사무처장 급여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걸로 충당을 또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협회 기금을 써가면서까지, 회장님 출연금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전무이사 제도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습니다.
- 회 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춘 부회장님이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 부회장: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사무처장이 적격자 없음으로 끝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처장을 뽑는다 해도 아마 그게 우리 자체 기금이 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는 티오가 몇 명이죠?
- 사회자: 현재 6명입니다.
- 000 부회장: 6명이라서, 누구든지 1명을 뽑든 어쨌든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활동비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윤차장님이 열심히는 하고 계셔도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지나고 하면 되겠지만. 아직 어느 정도는 요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조금이라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게 아직까지 역할은 있지만 수당이나 활동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꼭 전무이사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회장님 이하 여러 분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다음 달에 전무이사를 뽑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사회에서 전무이사를 뽑을 수 있는 것을 통과시켜서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괜찮은 인재가 있을 때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의사항에 넣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 당장 전무이사를 뽑자 이런 건 아니에요.
- 000 이사: 모집 공고를 띄워서 하실 건지...
- 000 부회장: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전무이사 같은 경우는 공고해서 해야 되나?
- 사회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차피 이분도 이사시거든요. 공고를 띄운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공모로 임원을 충원하시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기존 이사님 중에 전무라는 보직을 회장님께서 주셔서 전무 역할을 맡기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전무이사도 협회의 등기임원입니다.
- 000 이사: 임원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대의원총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금 저희가 풀로 다 찼죠?
- 사회자: 예, 지금 현재로는...
- 000 이사: 그래서 아마 충원을 대의원총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전무이사 제도가 전에도 선배님들이나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다 됐

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하시려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 들어오는 이야기로는 사무처장 모집 공고해서 인사위원회 열고 다 했는데 왜 사무처장을 안 뽑나? 그때 시도 지도자들이나 다들 의아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전무이사 제도를 하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그 선배를 전무이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영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있어요.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은 아시겠지만 심히 다른 시도 지도자들, 후배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000 부회장: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향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 전무님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낮게 폄하하는 이야기고요. 물론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협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요트협회가 요즘 너무나 선수도 없고 시도에서 엘리트 선수들 적어지고 아까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제 종이호랑이밖에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발전적인 건 없고 서로 싸우고 뭐 하고 누가 뭐 하면 막 짓어대고 그냥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보면 그냥 보지 못할 진짜, 저는 추잡스러워서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쪽팔려서, 저 요트 38년 했는데요. 나도 딸 있지만 나 진짜 우리 딸한테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 좀 하고 싶어요. 뭘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고 뭔가를 좀 화합하고 맨날 말로만 화합하는 것들이 참 싫습니다. 이게 사실은 협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사무처장 제도도 만들려고 했고 또 사무처장을 하려다 보니 또 능력이 안 되고 또 요트에 관련돼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장을 뽑지도 못했어요. 또한 협회를 키우고 발전시키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은 밖에 지금 사업하고 계십니다. 이동춘 부회장님도 사업하고 계세요. 물론 협회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금이 오다 보니 그래도 수석 부회장님께서 뭔가를 역할하고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수석 부회장이 되셔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요트인들이 누군가 나서서, 하다못해 전무라도 나서서, 하다못해 요트인 누가, 지금 당장 내일 뽑는다는 건 아니지만 요트를 알고 요트를 발전시키고 회장님을 보좌하고 협회를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요즘 요트 발전 엘리트 체육도 소멸해가고 있는데 이것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외적인 동호인들 요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 협회에서는 이런 걸 제시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안도 없고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트 면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회와 협의해서 아까 지원으로 우리 위상을 높이는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차장 사무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차장으로서 아직은 부족하고 그다음 우리 협회 임원들도 각자 본연의 자기 업무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한요트협회 발전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분을 모셔서 요트 발전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요트를 위해서 한 사람쯤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회 장: 000 부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대한요트협회 홈페이지에 진짜 들어가기도 창피할 정도로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이, 그건 남들한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차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중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보셨지만 그렇게 우리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를 전부 게시판 개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트인들끼리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다 보는 게시판에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신 000 이사님 협회를 위해서 하신 거는 저도 공감하고요. 어차피 사무처장이나 전무이사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는 어차피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름만 틀린 거지 전무이사든 사무처장이든 그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 000 부회장: 그렇죠.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 000 이사: 사무처장은 채용공고를 해야 되고 전무이사는 회장님 임명입니다.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회 장: 그러면 이사님, 어차피 어떻게든지 우리 이사진들이 구성이 됐잖아요. 이사님들이 한 거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충당금이 조금 손실되더라도 제가 더 서포트 받아올게요. 그래서 그냥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 000 이사: 000 부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화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안건을 이틀 전에 받았습시다. 체전 끝나기 이틀 전에. 그래서 제가 TFT 그거 보고나서 알았는데 그전에 벌써 이야기 나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향위원장도 현장에 있었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상의를 해주셔서 같이 화합으로 가신다 하면 화합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그렇게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해주셨으면 저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 부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000 부회장: 제가 멀리 있어서 제가 결재를 늦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늦게 메일이 송부되고 한 것들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회 장: 그러면 3호 안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사 다수 있음.

다. 논의 결론: 전무이사 제도를 도입함.

□ 기타사항

1.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구비 지급 관련

- 000 이사: 유소년육성위원회를 4년째 부위원장부터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대한요트협회에서 학교 체육 지도자들에게 1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셨다고

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너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누가 왜 지급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000 부회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0 이사님, 제가 말이 많아서요. 일단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게 회장님께서 처음에 공약 사업입니다. 공약 사업을 먼저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도자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회장님께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 000 이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학교 체육 지도자들 박봉이예요. 박봉인데다가 그렇게 또 힘을 실어줘야 애들 전국체전에서 각 시도에서 메달 따고 하는데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코치들도 힘이 나고 흥이 날 것 아닙니까?
- 회 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00 이사: 지원을 할 때 명확하게 사무처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그냥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은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가 많이 궁금했었어요. 학교 체육 전임 지도자라든지 내지는 전임 지도자가 아닌 코치들도 상당히 제가 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급여를 못 받고 학생들을 육성하는 코치들도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어떤 분은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누구나 타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저희가 학생부 초중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지도자들이 매년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고등학교의 지도자면 무슨 고등학교의 지도자로 등록을 합니다. 저희는 대한요트협회 등록 시스템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등록된 24명에게만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있었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사업 관련

- 000 이사: 올해 대한체육회에서 7,000만 원 공모를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을 또 유소년들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이라고 해서 전문 선수와 일반 학생들과 그 종목을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이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가 내려와서 신청계획서를 꼼꼼하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7,800만 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냥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시도 간담회 같은 것들도 두 번 정도 했고 좋은 경기 방식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4개 권역으로 나뉘었습니다. 학생이라서 멀리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

보령, 전남권에서는 보성, 부산 그리고 강원도 강릉 그렇게 해서 4개 권역을 진행하고 있고 2개를 완료했고 10월 말에 보성과 부산 2개가 남아있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찍어놔서 그것도 올릴 텐데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 000 부회장: 추진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왜 보고를 안 했죠?
- 사회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000 이사: 예산에 대한 부분이 7,8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서울에서도 요트를 2~3일 접해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숙박도 해야 하고 이동비도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4개 권역에서 7,800만 원 갖고 주말에 대어를 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 편성은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제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9명이 저희는 갈 수가 있었는데 9명이 주말에 강릉을 간다든가 제주도를 가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그 학생들은 참여를 시키고 싶은데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 그런 사업을 따서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어차피 엘리트와 요트 초보자들이 어울리는 마당이잖아요. 어울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000 부회장: 내년에 혹시 되면 서울 권역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저희가 권역을 설정할 때 당시 첫 번째, 7,800만 원을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역별로 했고 권역별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도가 하겠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데를 중심으로 했고 이 권역에는 어떤 시도가 참여하겠다고 일단 일차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대 금액이 많이 오더라도 지침에 학생 선수의 숙박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예산을 더 써야 될 부분, 덜 써야 될 부분 이렇게 하니까 남는 부분 잘 다듬어서 권역을 늘리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000 부회장: 예를 들어서 건너뛰기로 해서 내년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을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 사회자: 맞습니다. 그거는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3.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시 젊은 사람들의 등용 기회 제공 건의

- 000 이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간의 파벌 싸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사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파벌이라는 게 한 종목에서 너무 오랫동안 다들 많이 계셔서 약간 나뉘져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처럼 어린 선수들이 이런 이사라든지 이런 자리에 많이 편성돼서 저도 운이 좋게 어떻게 이사로 들어왔지만 여기 들어와보니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현재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위에 어른

들이 계시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화합을 해서 어른들이 있지만 밑에서 조금 더 으쌰으쌰해서 올라가면서 좋은 시너지를 발생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너무 어르시다 보니까 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나 이사님들을 편성하실 때 너무 올드 하지 않게 맞춰서 젊은 분들도 편성해서 의견들을 자주 들어야지 우리처럼 젊은 애들도 어른들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자리에 가야 하기 때문에 자꾸 밑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이런 친구들을 조금씩 밀어 올려 보내야죠. 그래야지 언젠가는 위로 가면 우리도 밑에서 올려주고 해야 화합이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정말 오랫동안 계셔서 약간은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젊은 친구들을 올려주십시오.

4. 대한요트협회 차원의 1박 2일 세미나 개최 건의

- 000 부회장: 기타 안전 이야기 중이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핸드폰에 어떤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놨어요. 핸드폰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는 분과별로, 위원별로 운영 회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발전 방향도 제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에 기금도 많이 내놓으시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뭔가를 하시고 본인은 뒤에서 그냥 후원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회장님 취임식도 계획을 했는데 취임식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돈으로 협회 운영 발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고 취임식도 사실은 거의 하지 않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물론 회장님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연말에 정기총회나 앞서서 분과별로 어디 장소 한 군데 모여서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논의도 하고 이사들도 만나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회장님을 모시고 대한요트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1박 2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 해서 장소 한번 잡아서 협회 예산을 들여서 1박 2일 발전을 위한 세미나 어떻습니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 000 부회장: 그건 비공식적으로 하고요.
- 회 장: 일정들이 쉽지가 않으니깐 한번 잡아서...
- 000 부회장: 회장님 취임식도 안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비용으로 아까 우리 협회 선수, 지도자 또한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뭐든 한번 1박 2일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000 부회장: 준비 한번 해봅시다.
- 사회자: 우리 예산에 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임원 워크숍을 확장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회 장: 같이 하는 게 낫겠네요.

5.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신설 추진

- 000 이사: 지금 활성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초등부가 소년체전에 신설되지 않아서 이게 초등부부터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오고 더 나아가서 대학도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초등부가 소년체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활성화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는 종목을 변형시키고 덩치나 키 성장 발육에 맞춰서. 그런 준비를 계획하셔서 체육회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걸 줘...
- 회 장: 저번에 000 부회장님, 이기흥 회장님께 우리가 그런 거를 제안하지 않았었나요?
- 000 부회장: 예, 했습니다.
- 000 이사: 그거 전에 한참 해서 했었는데요.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직전에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협회에서 밀어서 하면 승인이 80% 됩니다.
- 사회자: 너무 희망적이게 말씀하셨는데, 소년체전에 종목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부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소년체전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방식에 뭔가 추가시키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 000 이사: 그때 거의 하는 걸로 다 됐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끝에서 다른 종목 때문에 틀어졌어요. 아마 내년에는 자기네들이 해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 000 이사: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교육부와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 000 이사: 000 이사님이 하시죠.
- 000 이사: 저는 근무지가 여수여서...
- 000 이사: 지금 유소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000 이사님 참 유소년 육성에서 제가 주변에서 겪어봤는데 진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협회 이사님들이나 지도자들 보면 초등부를 창단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님 학교에도 계시고 여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와서 같이 유소년육성위원회에서 다뤄서 공유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소년육성위원회에서 예산도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더 해서 그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000 이사님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이사: 우선 유소년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협회에서 막내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협회의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맡고 계셔서 그 상황에서도 어떤 지원 없이 학생들에게 노력을 해왔는데 회장님께서 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학부모와 학생과의 단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자존감을 심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유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처럼 그런 캠프들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 캠프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것은 과감하게 000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이들이 대한요트 협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젊은 선수와 젊은 지도자들이 주인공으로서 청소년 스포

츠 한마당을 이끌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구요. 세 번째는 교육청에서도 근무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회연 교육감님 모시고 학생들 여러 명 데리고 가는 독도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벽에 부딪혀봤지만 가장 큰 벽이 수도권에서는 평택에 경기도요트협회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없어요. 수도권까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평택이 수도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이사님들께서 한강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랬을 때 서울의 초등부가 개설이 된다는 조건으로 많은 장학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봉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보따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도자 제공하고 장비 대겠다, 모든 건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접근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창단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돈이 있다. 그리고 지도자와 우리가 할 테니까 무조건 서울에 초 등부를 열어달라고 접근을 한다면 그 점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었어요. 협회로 돌아왔을 때 많은 이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늘 이야기하시는 게 찬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대기업에서 받아와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우리 요트협회 회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회장님이 해주셔야지 왜 이걸 대기업이나 다른 쪽에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00만 원 정도의 보따리가 있다면 당당하게 서울에도 초등부가 생기지 않을까. 현장의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됐습니다. 서울시 요트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협회가 있는데 왜 중앙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많은 이사님들께서 서울 한강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셨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런 건 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왔을 때 서울시 요트협회도 회장님께서 거기에 공동대응으로 많은 걸 준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회장님, 조금 전에 소년체전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소년체전의 변경 건과 전국체전의 변경 건 두 개를 가지고 접근해서 전국체전은 승인을 받았고 소년체전은 못 받았습니다. 소년체전이 훨씬 더 어렵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식을 주장할 것이냐는 대회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소년체전에 초등부에 무슨 종목을 넣겠다, 메달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면 유소년육성위원장님과 시도의 교육청을 타진하든 아니면 체전 평가할 때 같이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유소년위원장이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6. 대학부 활성화 및 전국체육대회 배점 방식 변경 검토 건의

- 000 이사: 하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아까 유소년부에 대해서 제안했을 때 혹시 그거 안에는 대학교 있었습니까?
- 사회자: 소년체전 말씀하십니까?
- 000 이사: 대학교 이야기하는 겁니다.
- 사회자: 전국체전 말씀하십니까? 전국체전에서는 작년에는 대학부 신청이 아니었고

혼성으로 바꾸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 000 이사: 개인적으로는 유소년부 생기는 것도 찬성을 하는데 기존에 고등부 학생들 시도별로 많이 육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도별로 학생들이 육성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불과 7~8년 전만 해도 전국에 대학부 학생들을 특히 혜택을 주면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에 전부터 계속 안 들어가다 보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 대학이 없어집니다. 유소년과 학생들이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420 클래스 선수들만 봐도 같 대학이 없습니다. 2인승 안 뽑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학교가 생기게 되면 유소년부나 학생들 활성이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고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체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점수가 메달로 해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 테니스라든가 탁구, 핸드볼 이러한 종목들은 참가 점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알다시피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보통 많게는 한 달 전부터 각 시도별로 훈련합니다. 6개월 뒤에는 최소 2주 전에 하고. 근데 2주 동안은 고생하는 걸 봤을 때 0점을 받고 귀환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예전에 왔던 그런 관행을 버려서 전국체전에, 아까 화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각 시도 참가 점수를 배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도별로 해서도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교육청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 있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지원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가면 0점을 받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가 점수는 팀들한테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50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거를 받고 자꾸 주변에서 서로 간에 지역마다 양성하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타 안전이니까 예를 들어 소프트 테니스 같은 경우 참가 점수가 120점이에요. 탁구도 그렇고.
- 000 부회장: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무국에 질의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원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회의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 한소쿠리에 담아서 풀어나가지 못할해요. 그래서 지금 전무이사도 필요한 것이고 기타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논의가 발전에 가속화하는 것 같습니다.

7. 이사 회비(찬조금) 납부

- 000 이사: 이사 회비 회장님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사 회비 같이 십시일반 거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맞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 000 이사: 전에 이사들은 그전에 100만 원씩 해서 이사 회비 내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내라는 소리가 없어서.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십시일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 “동의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림.

8. 거제시요트협회 박병원 회장 이임 관련 공로패 수여

- 000 부회장: 혹시 사무국에서 거제시요트협회 회장님 이취임식 관련해서 공문 온 거 있어요?
- 사회자: 받은 바는 없습니다.
- 000 부회장: 네, 거제시요트협회. 10월 22일날 거제시요트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 윈드서핑 종목 김병원 회장님 아시죠? 회장님이 관두시고 다른 회장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84년부터 거제에서 요트 선수들을 육성하면서 이제까지 대한요트협회 위원회 위원도 했었고 또한 거제시 경상남도 간사부터 부회장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취임식 하는데 대한요트협회 회장님 상으로 공로패를 하나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거기에 이태훈 선수나 윈드서핑은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선수를 많이 배출했잖아요. 이동춘 부회장님 시간 되십니까? 한번 다녀오시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 회 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 “네.” 하는 소리가 들림.
- 회 장: 이것으로 대한요트협회 22년 제7차 이사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선언: 16시 58분)